‘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’와 ‘네트워크 신부족 사회’에서의 사회통합

김윤찬
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

발표의 개요

"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"와 **"네트워크신부족사회"**로 규정할 수 있는 21세기 초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**사회통합**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

역사 속에서 본 미디어와 사회통합

- 20세기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'미디어'는 사회통합(경제적, 정치적, 종교적, 문화적 통합)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. 예를들어....
  - 바벨론의 지구라트 (유목 부족들의 통합을 위한 상징)
  - 이집트의 피라미드 (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정치, 종교, 경제 공동체 통합)
  - 로마제국의 도로 (제국을 통합하는 고대의 '인터넷망')
  -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(민족이라는 상상 공동체의 통합)
- 하지만 이런 통합의 과정들에는 늘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다른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했다.

매스미디어 시대: 미디어와 사회통합

-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다양한 사회 변화가 사회통합의 새로운 필요성과 정당성을 만들었다.
  - 도시화와 산업화
  - 정치적 대립, 사회 분화(social differentiation), 인구의 다양성 증대, 불평등 증대
  - 자본주의의 발전: 통합된 시장과 소비자 정체성 형성의 필요
- Harold Laswell이나 Charles Wright 등이 말한 매스미디어의 기능들 (예:환경감시, 상관조정, 유산전수, 오락) 등은 결국 사회통합 기능의 하부 차원들이라 할 수 있다.
- 매스미디어는 전송(transmission)의 채널로서, 혹은 의례(ritual)의 마당으로서 사회통합 기제로 역할한다.
- 그러나 20세기를 돌이켜봄을 때 매스미디어는 과연 사회 통합에 효과적이었을까? (예: 60년대의 유럽과 미국)

미디어와 사회 통합의 약한/다면적 고리들

- 매스미디어시대 통합의 문제는 다수준적(multi-level) 문제였다.
  - 개인, 가족, 지역 사회, 대도시, 국가 수준은 각각의 통합 문제를 갖는다.
  - 한 수준에서의 통합 정도는 다른 수준의 통합 정도에 정적으로도, 부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(가령 Cantril과 Allport의 라디오 연구, Putnam의 TV 연구)
- 미디어를 통한 사회통합이 획일적 지배, 억압, 통제를 위한 통합일 수 있다.
- 미디어의 통합적 힘에 대한 대안적 힘들을 무시할 수 없다: 가령 사회적 관계의 힘(Katz & Lazarsfeld)과 하부문화sub-culture (Claude Fischer)의 힘을 재발견
- 맥퀘일(2000)은 미디어와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를 낙관적/비관적 전망의 축과 원심적/구심적 효과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다른 경우들을 구분한다
  - 자유다양성 (낙관적, 원심적)
  - 통합, 결속 (낙관적, 구심적)
  - 규범해체, 정체성 상실 (비관적, 원심적)
  - 지배 획일성 (비관적, 구심적)

‘포스트매스미디어’ 시대의 도래

POST-MASS MEDIA

- 20세기 매스미디어 시대는 인류 미디어 역사에서 보면 돌출된 시기였다. 탈매스미디어의 움직임이 20세기에도 있었다.
- 미디어 환경의 물리적, 기술적, 제도적, 사회적, 상징적 환경이 매스미디어 지배적 환경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다.
- 그러나 매스미디어 체계의 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. 여전히 매스미디어 시대의 기술, 제도, 내용, 인력, 공간/장소가 남아 있고, 그것이 새로운 미디어를 구조화하려 한다.
- 하지만 매스미디어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, 제도, 내용, 인력, 공간/장소가 등장하고 있고,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없던 새로운 미디어 규범과 효능감이 생겨나고 있고,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행위들을 볼 수 있다.

매스미디어 시대 vs. 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

매스미디어 시대

- Mass communication
- 자율적, 독립적 개인
- 집단정체성 (국민, 대중, 수용자)
- 생산자와 수용자의 명확한 구분
- 지배적 이야기의 독점 체제
- 산업적 정보 경제
- 개인과 국가가 통합의 기본 단위

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

- Mass self-communication (Castells)
- 연결된 개인 (Wellman)
- 기획으로서의 정체성 (유연, 성찰)
- 생산자와 수용자 구분이 모호해짐
- 경쟁하는 이야기들
- 네트워크 정보 경제
- 통합의 단위로서 초국가네트워크와 지역의 부상

‘네트워크 신부족사회’의 도래
NETWORKED NEO-TRIBALISM

- 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사회 형식
- 미셸 마페졸리(Maffesoli)가 1980년대 제기한 ‘신부족사회’ 개념을 기반으로 함
  - 개인과 국가 사이에 등장하는 2차 집단으로서의 다양한 ‘부족’ 사회 형태들
  - 탈개인주의의 결과: 개별적, 독립적, 자율적 주체로서의 **개인**에서 다양한 주체를 연출/연기하는 페르소나로서의 **사람(들)**로 전환
  - 현대 사회 국지적 신들의 등장: 다시 연결하기로서의 re-ligion과 재주술화
  - (1) 어떤 정치적 기획으로도 식별되지 않고, (2) 어떠한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, (3) 집단적으로 경험되는, (4) 현재에 대한 관심만이 신부족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
  - 양립가능한 모순
- 신부족사회화는 사회 해체와 분열, 아노미의 징후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사회성(sociality) 경험인가?
- 지난 30년 동안의 미디어 환경 변화, ‘넥스트인터넷’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부족사회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됨 → networked neo-tribal societies

‘네트워크 신부족사회’의 특징
NETWORKED NEO-TRIBALISM

- 다부족사회: 다중심성, 다수준성
- 자신이 속할 ‘부족’을 찾고 연결하고, 조정하는 거래비용이 매우 낮아졌다.
- Hybridity의 사회: Convergent sphere, Familiar strangeness, Embodied virtual, Glocal(ity), virtual real (혹은 real virtual), networked individualism
- 복수의 부족들—개인(성)은 그가 속한 부족(들)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표현
- 개인은 복수의 부족 사이에서 다극적 왕복운동(shuttling)
- 부족 내부에서만 의미를 갖는 새로운 방식의 의례와 토템: 개인은 복수의 의례와 토템들을 개인 일상 속에서 조정
- 부족의 경험은 매개된(mediated) 경험과 즉각적(immediate) 경험, 혹은 그것들의 통합 형태를 띰
- 다양한 유형의 공론장들 필요: 부족 내부의 공론장, 부족간 공론장, 부족을 넘어선 공론장
- 도시와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
-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: 양극화(혹은 다극화)가 다부족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?

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와 네트워크 신부족사회의 맥락에서

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

- 비통합, 반통합, 통합보는, 부분적 (비)통합을 포함하는 통합
- 통합의 다양한 수준(level)을 고려해야 함
  - 개인수준 통합 (integrity), 가족 단위 통합, 장소공동체의 통합, 도시의 통합, 정파적 통합, 사회의 통합, 국가의 통합, 민족의 통합, 지역적 통합, 국제적 수준의 통합
- '차이의 정치'(Iris Young)를 고려한 통합: 지배와 억압의 통합이 아니라,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
- 다름과 차이를 숨기고, 억애고, 합병하는 소통의 통합이 아니라, 다름과 차이를 관리하는 소통의 통합
- 경쟁(rivalry), 공생(co-habitation), 공존(co-existence)이 모두 가능한 통합
- '다부족사회'로서의 네트워크 신부족사회에서 적용할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

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와 네트워크 신부족사회의 맥락에서

양극화(POLARIZATION)문제에 대해

- 양극화 문제를 논할 때 그 준거점은?
- 양극화 문제가 없던 시기와 사회가 있었나?
- 통합은 항상 선인가? ('통합된') 단일 부족 사회는 항상 이상적인가?
-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전환
- 양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, 실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
  - 고착된 양극화
  - 다극화의 가능성이 봉쇄된 양극화
  - 이동의 자유가 없는 양(다)극화
  - 부족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하는 의례와 규범의 부재
  - 부족을 아우르는 공론장의 부재

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와 네트워크 신부족사회의 맥락에서

언론의 문제에 대해서

-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문(door)이 아니라 다리(bridge)의 역할 (Gimmel)
- 한 부족의 '제사장'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는 언론
- 다층의 공론장 (가령 부족 내부의 공론장, 부족간 공론장, 부족을 넘어선 공론) 형성, 유지에 기여
- 서로 말이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번역가와 해석자로 역할하는 언론
- "코즈모폴리턴 저널리즘"

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와 네트워크 신부족사회의 맥락에서

'미디어 환경'에 대한 윤리적 질문들

- 얼마나 성찰적인가? (Reflection)
- 얼마나 열려있는가? (Openness)
- 얼마나 자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부족(들)에 속할 수 있는가? (Relevance)
- 얼마나 평등한가? (Equitability)
- 얼마나 차이 수용적인가? (Difference management)

참고문헌

Benkler, Y. (2006). *The wealth of networks: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*. New Haven, CT: Yale University Press.

Castells, M. (2000). *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* (2nd ed.). Malden, MA: Blackwell.

Castells, M. (2009). *Communication power*. New York: Oxford University Press.

Chua, A. (2018). Political tribes: Group instinct and the fate of nation.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. 김소진 (역). 정치적 부족주의. 서울: 부키

Kim, Y.C. (2020, August). *Defining media environment: An introduction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-structure-action model*. Paper presented at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(AEJMC) Annual Conference, Virtual Conference.

Kim, Y.C., Kim, Y., & Chae, Y. (2020, May). *Communication and Differences in Contemporary Urban Neighborhoods*.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, Virtual Conference.

Maffesoli, M. (2000). Le Temps des tribus. 박정호, 신지은 (역). 부족의 시대: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쇠퇴. 서울: 문학동네

McQuail, D. (2010). *Mass communication theory*. Thousand Oaks, CA: Sage publications.

Moffett, M. W. (2018). The human swarm: How our society arise, thrive, and fall. 김성훈 (역). 인간무리: 왜 무리지어 사는가. 서울: 김영사

Rainie, L., & Wellman, B. (2012). *Networked: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*. Cambridge: MIT Press.

Simmel, G. (1997). Bridge and door. In Frisby, D. & Featherstone, M. *(Eds.). Simmel on culture: Selected writings* (pp.170-174). London, Sage.

Young, I. M. (2011). *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* Princeton, NJ: Princeton University Press